



서울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개원 | “병실생활 이제 짜증안나요”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자원봉사자 김희자 씨의 '인형 놀이'에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유승이, 힘차랑 그만해요.”
“싫어요!”
“팍~. 트럭 장난감이 내동댕이쳐진다. 이것도 모자라 이 구석 저 구석을 뛰어다니며, 온 방을 종횡무진 누빈다. 입원 후 3일내내 링걸 주사를 달고 지냈던 유승이(7). 해방감에 퐁 퐁 물고기가 됐다.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5월 20일 서울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아침밥 수저 놓기 무섭게 12층 소

아과 병동 '장난꾸러기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 새침때기 다희(5), 색종이 접기 박사 승호(6), 블록 쌓기 대장 민수(7)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엄마들의 수도도 시작된다. 아이들의 병이 얼마나 낫는지 묻는 것은 기본, 유아교육 문제, 심지어 남편과 시어머니 흥보기에 이르기까지 놀이방은 어 느새 엄마들의 사랑방이 된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말수가

적어 졌어요. 짜증도 부쩍 늘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세요. 아이가 엄마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원봉사자 이남숙 씨(52·희명화)의 조언에 유승이 엄마 허금숙(37)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베테랑 엄마가 전수하는 유아교육 비법에 “젊은 엄마”들의 귀가 쫄긋 섰다.
지난달 개원한 '꽃놀이 방'. 3년 전

‘우주법계사’ 보살들에 의해 새단장 오전 10시부터 2인 1조로 봉사활동 인형극, 유아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

문 닫았던 이곳을 자칭 '우주법계사' 보살 7명이 의기투합해서 다시 열었다. 다니는 사찰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보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열을 내며 봉화책에 잔뜩 쌓인 먼지를 일일이 털어내고, 장난감도 깨끗이 닦았다. 또 순번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놀이방을 지켰다. 오직 아이들에게 편안한 심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잠시라도 이곳에서 쉬었다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죠. 늦게나마 이렇게 놀이방을 열게 돼 요즘은 봉사하는 즐거움에 탄탄합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인형극 보여주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는 김희자 씨(50·법진화)가 웃음을 내어보인다.
하지만 '꽃놀이 방' 봉사자들은 적



■ 나눔의 저금통 수거현황

광주직할시 한미음선원 신도일동 - 2백52만 1250원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하신 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성금 내신 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장지연 보살 - 200달러 (22만원)

■ 나눔의 스티커 신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 스티커 - 300장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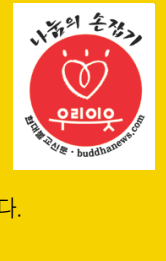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도봉사 총무 관덕 스님이 북서울중학교 학생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햄버거 맛이 꿀맛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5월 24일, 북서울중학교 2학년 12반 교실. 담임인 김 규진 선생님이 햄버거를 들고 교실로 들어오자 ‘와’ 하는 함

성이 이어진다.
이 학교 불교반 지도교사이기도 한 김규진 선생님은 “5월 26일은 2548년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이 여러

“와~ 맛있다” 매일 오늘 같았으면...

분들에게 햄버거를 선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사 총무 관덕 스님은 “5월 26일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잠짓을 한번씩 되새겨보며,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으면 한다”고 얘기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이어진다.
도봉사는 25일에도 도봉중학교 전교생에게도 햄버거와 음료수 반발공

급하고 있다. 또 3월 북서울중학교에 불교반 설치를 지원했다. 현재 2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봉사에서 매달 법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봉중학교와도 근시일내 불교반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
스님은 불교반 청소년을 비롯 일반 청소년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도봉사로 만들기 위해 도봉사 진입로 500m를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중이며, 경내에는 게임방과 노래방, 매드민턴장을 운영중에 있다.

원명 스님은 현재 도봉초등학교를 비롯 도봉구 3개 초등학교 결식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2개 중학교 학생 40여명에게 매달 급식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도봉사 원명스님, 북서울중 도봉중에 2500개 햄버거·음료수 봉축선물 전달 사찰 진입로에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중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성'을 기쁘어 주는 참된 보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전남지역 어린이법회 지원 조계종 중흥회도 동참키로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찬불가 동요집 20세트가 전남지역 어린이 법회 진행사찰에 전달됐다.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 청계사 주지)는 5월 21일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장기)에서 2차 CD 보내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본지와 법이고 있는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앙신도회에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 최현 사무총장은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에 중앙신도회도 함께 동참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전남지역 어린이 법회 운영사찰에 찬불동요 CD 20세트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회 및 세우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